

September 29, 2006


 UPKOREA.net 사회

박근혜 독트린...'동북아 안보경제공동체'가 목표

[업코리아 2006-09-29 06:29]



"北, 대량살상무기 포기하면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추진"

독일을 방문중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박근혜 독트린'을 선포했다.

박 전 대표는 28일 오후 5시(한국시간 29일 오전 1시) '독일과 한국 : 함께 열어나가는 미래' 제하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초청 연설을 통해 '강한 경제력과 전쟁억지력', '원칙 있는 대북정책',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외교' 등 '한반도 평화 및 남북 통일을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하는 가운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마스터플랜도 함께 발표했다.

박 전 대표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할 경우 6자회담 당사국은 물론 몽고와 EU 그리고 IBRD, EBRD, ADB 등 국제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북한의 경제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중국의 동북 3성과 러시아의 극동, 몽고 등 동북아시아 개발에 투자하는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 구상을 제안했다.

또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핵문제 해결 이후에도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동북아 안보협의체'로 발전시키고, '동북아개발은행'과 '동북아 안보협의체'의 성공적 운용을 통해 '동북아안보경제공동체'(NEASEC : North East Asian Security Economic Community)라는 포괄적 다자협력체로 확대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September 29, 2006 세상을 보는 힘
UPKOREA.net 사회

Übersetzung

Die Park Geun-hye Doktrin: “North East Asian Security Economic Community” als Ziel

Wenn Nordkorea seine Atomwaffen aufgibt, kann eine „Northeast Asia Development Bank“ gegründet werden.

Park Geun-hye hat in Deutschland die so genannte ‚Park Geun-hye Doktrin‘ vorgestellt. Damit ließe sich sowohl der Atomwaffenkonflikt mit Nordkorea lösen als auch einer friedlichen Wiedervereinigung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näher kommen.

Bei ihrer Rede in der Konrad-Adenauer-Stiftung nannte sie drei Prinzipien als Grundlage für einen stabilen Frieden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sowie für eine innerkoreanische Wiedervereinigung: ‚Starke Wirtschaftsfähigkeit und Kriegsfreiheit‘, ‚Nordkoreapolitik mit Richtlinien‘ und ‚Außenpolitik zur Schaffung einer Wiedervereinigungsstimmung‘